

광주시 공기산업 육성 본격 추진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출범
위니아딤채 등 56개 기업 참여
28일 싱가포르서 수출 계약
신제품 개발·수출지원 등 도움

광주시가 공기 관련 산업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한국 공기산업진흥회를 출범하고 공기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국 공기산업진흥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지원실장, 전자부품연구원 김영삼 원장,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 공기산업진흥회 김보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기산업진흥회는 공기산업 발전 및 신제품 개발, 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설립했다. (주)위니아딤채, 오텍캐리어(주), (주)하영전자 등 56개 지역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했다.

공기산업진흥회는 앞으로 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과 수출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인증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 공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수출 장구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진흥회는 28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현지 에어가전 전문판매사인 AOM사, dna사 등과 (주)감성의 대용량 공기정화기 등 9개사 10개 제품,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보곤 공기산업진흥회장 등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흥회는 이날 출범식이 이어 수출계약 기념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지역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에어가전이 해외로 공동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진흥회는 내년에 싱가포르에 ‘에어 가전 공동 사후관리(A/S) 센터’를 개소해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연말까지 LG, 삼성, 코웨이 등 대기업도 참여시켜 회원

사 규모를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공기산업이 수출 계약 체결과 사후관리 센터 개소 등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공기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혁신성장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다”며 “광주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서나가기 위해 오늘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공

기산업진흥회 출범으로 지역 중소 에어가전 기업들이 공동협력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원천기술과 신제품 개발, 해외 판로 확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방탄소년단, 병역이행 그대로

대체복무제 ‘연예인 미포함’... 공정성·형평성 고려

방탄소년단(BTS·사진)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연 국무총리 주재 등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이행 공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초,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쿵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 관련해 문제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연합뉴스

독일 바이체커 전 대통령 아들, 강연중 흥기 짙어 숨져

친한파 정치인 바이체커...DJ 사형 선고때 구명운동

독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의 아들인 프리츠 폰바이체커(59)가 19일(현지시간) 강연 도중 흥기에 찢려 사망했다.

2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프리츠 폰 바이체커는 자신이 근무하는 베를린 살로렌부르크의 솔로스파크 병원에서 의학 공개 강연을 하는 도중 한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날 비번으로 현장에 있던 33세의 경찰관이 공격을 막으려다 흥기에 찢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공격을 한 57세 남성을 체포했다. 아직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숨진 바이체커는 솔로스파크 병원 전문의로 이날 2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다.

양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 “친구인 바이체커가 흥기에 찢렸다. 그는 열정적인 의사였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슬퍼했다. 2015년 타계한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1984~1994년 서독 및 통일 독일의 대통령을 지내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특히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1985년 서독 의회에서 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누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독일인들은 꾸밈이나 왜곡 없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제대로) 과거를 보지 못하면 화해할 수 없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독일의 도덕적 양심’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독일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각별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1980년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이던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체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연방하원의 ‘김대중 구명 결의안’ 채택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키신저 “美中 냉전 초입”...전쟁 가능성 ‘경고’

전 미 국무부 장관, 무역갈등은 표면현상 정치목적 이해해야

미국 외교의 거두로 미중 관계 정상화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96) 전 미 국무부 장관이 미중 양국이 냉전 단계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으며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블룸버그 통신 주최로 열린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의 작은 언덕에 올라 서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1차 세계대전보다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차 세계대전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오늘날의 무기는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의) 중국과 미국은 (예전의) 소련과 미국을 훨씬 초월하는 나라

들”이라며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경제 국가인만큼 세계 어디서든 (이해 충돌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아직은 냉전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중 양국 간의 상호 접근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은 표면의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차원의 전면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지속해서 한미동맹 헌신”

美 1개여단 철수 보도에 입장 밝혀...에스퍼 장관, 사실 아나

주한미군사령부는 21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한국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이 무엇이나는 연합 뉴스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추가 사항이나 설명은 미 국방부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

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안보협의 회(SCM)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것임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산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완도읍 망석리 전방 좋은 자연녹지산 3306㎡ 휴양시설 등 적합 1억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북구 우암동 버스도로점 2층 주거지 950㎡ 건물 신축 좋음 19억
- 서구 마죽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물 110㎡ 매도 2억8천
- 무인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33억
- 나주시 다시면 광막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유조경출용 8억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원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 건물

- 완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육 적합 15억천
- 완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일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 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물 5동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명곡면) 11050㎡ 대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출용 6억4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홀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충 양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신 675-5530
	·송 화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우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